

다양한 기기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시스템 반도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물인터넷 시대의 시스템 반도체는 센서, 통신, 프로세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반도체 성능과 적용 분야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반도체 기업들이 사물인터넷에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찾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가 주력 비즈니스가 아니었던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반도체 시장에 진입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기업들은 기술 개발의 초점을 무어의 법칙으로 대변되는 지속적인 성능 고도화 대신 새롭게 부상하는 시스템 반도체의 트렌드 대응에 맞추고 있다. 사물인터넷 시대에서는 반도체의 저전력성이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전력 공급이 제한되는 환경에서 대부분 기기들의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지원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기기의 소형화 및 다양화로 특화 반도체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 기기의 빠른 출시를 적시적으로 지원하는 체계 구축도 중요한 특징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런 트렌드에 따라 향후 시스템 반도체 시장 경쟁에서는 하드웨어 못지않게 소프트웨어 역량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 공정의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고 저전력성 및 특화 기능 구현 등 완제품 기업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관련 소프트웨어의 꾸준한 성능 향상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하드웨어의 범용화 및 가치 하락 추세가 계속될수록 핵심 트렌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전략이 반도체 비즈니스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핵심 기술 강화와 더불어 수익성 확대를 위하여 기존 반도체 개발 및 판매 비즈니스를 넘는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의 추진 역시 업계의 주류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사물인터넷 시대에서는 완제품 자체보다 이를 구성하는 시스템 반도체가 보다 큰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시스템 반도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과 대만 기업들까지 거대 내수 시장과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 시장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시대의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 역시 반도체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전략 마련이 중요해 보인다. ■

운영은 만약 AI 전문가 인증을 획득하려면 인텔이 제공하는 AI 핵심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최근 18개월 이내에 정해진 수준 이상의 딥러닝 프로젝트를 배포한 이력 등을 입증하면 되는 식으로 운영된다.

인텔의 지원이 뒷받침되면 될수록 협력사와의 끈도 더 견고해진다.

파트너 기업들은 인텔 파트너 얼라이언스에서 획득한 자격 인증을 브랜딩에 활용하거나 실제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기도 한다.

일례로 글로벌 임베디드 컴퓨팅 기업 '에이디링크'는 공식 홈페이지에 인텔 파트너 얼라이언스 티타늄 등급 멤버임을 명시하고 있다.

국내 여가 플랫폼 '야놀자'도 지난해 말 '인텔 IoT 솔루션 얼라이언스'에 가입하고 이에 기반해 자체 호텔 솔루션 '와이프럭스'의 글로벌 출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각 파트너들은 얼라이언스 참여도를 기반으로 다시 멤버(Member), 골드(Gold), 티타늄(Titanium) 등 3단계 멤버십 등급으로 구분되며 상위 등급에 오를수록 인텔로부터 더 많은 비즈니스 옵션을 제공받는다. 단순한 참여를 넘어 지속적인 생태계 교류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보완 장치다.

인텔은 앞으로도 '인텔 파트너 얼라이언스 프로그램' 및 '인텔 파트너 유니버시티' 트레이닝 플랫폼을 활용해 첨단 기술 영역에서 다양한 파트너 기업들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인텔과 얼라이언스 참여사들 간 비즈니스 연결을 공고히 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한다.